

“인생에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창세기 37장 18-28절

오늘 저희들을 인생에 숨어 있는 환란과 황당하게 당하는 억울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사물을 볼 때 매우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대가는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복은 오고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기적은 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환경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부인으로부터 음해를 입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원망 불평하거나 의욕을 잃고 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얼굴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니 간수가 보기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사무일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환영 받을 수도 있고 미움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원망과 탄식, 해답이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그런데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 오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올 때 이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저항하고 반발하면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통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몫의 태인 운명으로 받아 들여라. 이는 내 팔자다. 내 팔자니까 내가 누구에게 원망하겠는가? 받아 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라고 고난 없나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 버리려고 애써서는 안됩니다. 안 벗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매섭게 전진해야 합니다. 이 삶의 도전에 이기면 삶에 왕이 되고 지면 패배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브링클린이라는 뉴스 캐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한다. 어떤 이는 원망에서 그 벽돌을 걷어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개인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의롭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인정해준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살 것인가 의롭게 살 것인가-보디발 부인의 유혹,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 갈 것인가? 안 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용서 받고 난 다음 우리가 의롭게 살 것인지, 죄와 타협하여 살 것인지도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가운데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딘 아름다웠던 모든 고난이 영망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참아 왔다 해도 범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아닐지도 몰라 내가 혹시 잘못 믿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 그 인도하심을 부인하게 된다는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술을 퍼먹는다는지, 성질대로 머리를 벽에 박는다는지, 이런 것도 다 유혹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집요하고 무서운 유혹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진정한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여자나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분노에 자신을 맡기거나 스스로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귀함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어 애굽까지 끌려 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서 화까지 낸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울 때 싸움까지 하게 되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일수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보듬어 주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당신이 최고' 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 때부터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고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아내나 남편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싸우고 싶으면 어려움이 끝나고 나서 싸워야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외부적으로 막 눌리는 상황에서 서로 화내고 싸우고 각 방 쓰면 정말 비참해 집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자신을 확대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음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은 비록 노예가 되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는 자신의 존귀함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여자의 유혹을 이길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존귀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은 요셉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에게 보복을 당해 감옥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이 일을 막아 주시지 않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이런 고통과 환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에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속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겉사람은 별 볼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력함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속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해질 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약해질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약해질 때 열심히 교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할 때는 교회 나오지 않고 친구들과하고 놀러 가고 술집 가고 노래방에 가고 그러다가 고난 당하면 술집도 쇼핑도 노래방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체가 고난 당해서 가시에 찔리고 약해지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을 좇아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고난밖에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따라 오시고 오고 싶은 대로 따라 오소서" 그러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여, 주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인해 자기 정욕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있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모든 생애를 돌아볼 때 모든 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가 마른 우물에 빠진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견져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미디안 대상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린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한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 다음에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6 장 33 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요셉에게 보여 주셨고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세계 이것을 영의 세계 혹은 사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애굽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니요, 배후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 절대 긍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눔의 시간

1. 나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2.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경우를 말해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말해 보세요.
3.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세요.